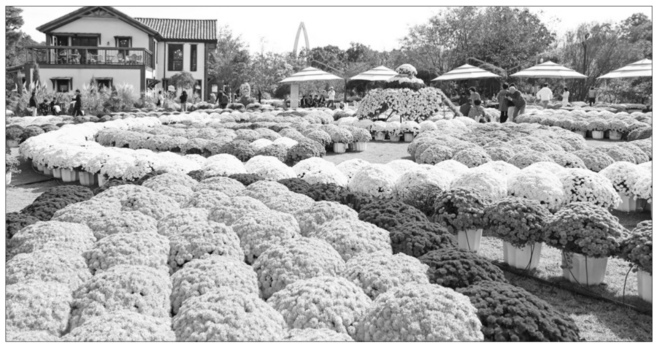
임실군, 국화 본격 재배 돌입

기상 변화 대응·품종 개선으로 더 풍성한 2026년 가을경관 조성 위해 추진



임실군이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붕어섬 국화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2026년 가을 전시를 위한 국화재배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임실군이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붕어섬 국화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2026년 가을 전시를 위한 국화재배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국화재배 과정에서 축적된 개화 시기와 품종별 생육 특성, 기상 조건 영향 등을 정밀 분석하여 내년도 재배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이상고온과 긴 장마, 집중호우 등 악조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개화를 이끌어낸 '임실형 국화재배 기술'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10일 단위 생육 관리, 품종별 생육 데이터 축적, 고온·다습 스트레스 대응 기술, 전문 재배팀의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갖추며 다년간 체계적인 재배 기술을 축적해 왔다.

이러한 기술력 덕분에 임실군 국화는 색이 선명하고 꽃망울 크기가 균일하며, 전시 기간 형태 유지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다.

내년에도 국화 생산량은 올해와 유사한 규모로 추진된다. 분화국 4만 3,700개는(사각 2만700개, 원형 2만 3,000개) 민간 위탁 생산하고, 현애국 400개는 지역농업실증시험포에서 직접 재배할 계획이다.

또한, 노랑·분홍·빨강·주황 등 7가지 색상으로 사각·원형 화분을 구성해 보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전시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혼합 화분 비율을 기존 24%에서 30%로 확대해 색채의 깊이와 입체감을 높이고, 전시 동선에 맞게 원형·사각 화분 배치를 세분화해 전시 공간 전체의 안정감과 균형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기상 여건을 분석해 내년도에는 고온기에도 안정적 개화가 가능한 품종을 선발하고, 생육 단계별 양·수분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축제 기간 중 적기 개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올해 축제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붕어섬에서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국화 전시를 선보여, 임실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가을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는 지난 21일, 광치제1농공단지에서 근로자의 복지와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광치복합문화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남원 광치복합문화센터 준공

농공단지 근로자 교육·문화 활동·안정적 정주 여건 지원

남원시는 지난 21일, 광치제1농공단지에서 근로자의 복지와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광치복합문화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준공된 '광치복합문화센터'는 총사업비 75억 원(국비 32억, 도비 4억, 시비 39억)을 투입해 2021년 11월 착공하여 약 4년에 걸쳐 완공되었다. 센터는 연면적 1,865.94㎡ 규모의 복합문화동과 기숙사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교육·문화 활동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동시에 지원한다.

준공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비롯해 시의장, 도의원,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관내 기관·단체장 및 중소기업 대표, 임직원 및 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컷팅, 시설 관람 등이 진행되었다.

준공식 후 기업 대표와 임직원, 근로자가 한자리에 모여 즐기는 문화공연,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근로자 화합 한마당'이 이어지며 행사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이번 행사는 '광치농공단지협의회'를 비롯한 농공단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든 공동 축제로, 관내 중소기업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경품이 더해지며 현장은 뜨거운 열기와 활기로 가득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지역사회건강조사 우수 유공기관 선정

순창군이 지난 20일 2025년 호남권 만성질환 관리사업 중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야에서 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순창군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근거 중심의 사업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 지역보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 △'자기혈관 숫자알기' 경로당 교육 △뇌졸중·심근경색 조기증상 인지 및 대처법 교육 △요양시설 방문 구강건강 리더 양성 교육 △찾아가는 중장년층 구강건강관리 교육 등이 있으며, 총 2,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고혈압·당뇨병 관리 교육 이수율, 당뇨병 진단자의 치료율,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등이 모두 뚜렷한 향상을 보였으며, 이 점이 높게 평가되어 이번 표창으로 이어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임실군이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냉난방에 필수적인 에너지(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사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하절기 전기 요금 차감, 동절기 난방 연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 질환자, 희귀 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된다.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돼 1인 세대는 29만 5,200원, 2인 세대는 40만 7,500원, 3인 세대는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 1,300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이용권 사용 기간은 2026년 5월 25일까지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방재정 공정성·투명성 강화

순창군, 제9차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개최

순창군이 지난 2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9차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2026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방재정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도 보조금 예산안 △신규 행사·축제 예산 사전심사 △2025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 대상으로 다뤘다.

심의에는 신종철 위원장(농협 순창군지부장)을 비롯해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8명이 참여해 각 안건에 대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순창 행복플러스타운 조성', '장독타워 구축', '한국 장문화 전수교육관 건립' 등 100억 원 이상 공모사업 3건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와 △금과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미생물농생명산업지구 조성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및 소프트테니스 대회 등 스포츠 행사 5건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주요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 지방보조금 예산안은 총 380건, 약 237억 원 규모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교육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포함됐다. 군은 이에 앞서 사회단체와 작목반 간담회를 통해 군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자원봉사대학 수료식 열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일 대한적십자봉사회 남원시협의회 봉사관에서 '2025년 자원봉사대학' 수료식을 열고, 3주간 진행된 총 6차시 교육 과정을 마무리했다.

자원봉사대학은 △뇌과학 기반 옥시토신과 자원봉사의 긍정적 영향 △이웃과 소통하는 방법 △민주적 참여와 공동체 실천 △업사이클링 가구 제작을 통한 나눔 실천 등 차시별로 주제가 연결된 흐름 속에서 진행됐으며, 교육은 자원봉사의 의미를 단계적으로 확장하며 참여자들의 이해와 실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수료식에서는 교육 활동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며 그동안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수료증 수여와 기념촬영이 이어졌다. 특히 참여자들이 제작한 업사이클링 가구를 편한세상 장애인복지시설 자립지원 체험홈 입주 장애인 가정에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 3곳 지정

남원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로 △전북도교육청 학생수련원 △남원시 노인복지관 △의료법인 남원성일병원 총 3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원시에는 작년에 선정된 3개소(남원의료원, 용북중학교, 풍악복지재단 편한세상)를 포함해 모두 6개소가 식품안전관리 우수집단급식소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남원시 식품안전관리 점검·평가는 집단급식소의 △시설 등 환경 △개인위생 △공정관리 △식품 보관·운송 등 총 32개 항목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올해 선정된 3개소에는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 현판을 부착하고, 12월 중 식중독 예방관리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 행정사무감사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위원장 염봉섭)는 제27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염봉섭 위원장은 곤충산업 농가들이 판로가 없어 힘들어하고 있다며 판로개척에 힘써줄 것을, 이숙자 부위원장은 청년 에코에너지스마트팜 조성과 관련해 청년농육성 정책에 교육, 창업, 정착 포함을 요청했다.

이기열 위원은 소형 관정이 꼭 필요한 농가들이 많으나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며 탄력적인 예산 운영으로 소형관정을 지원해 줄 것을, 김한수 위원은 올해 잦은 비로 볏짚의 건조와 수거가 어려워짐에 따른 볏짚 단가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명숙 위원은 여성농업인센터가 동부권에만 운영되고 있으니 서부권에도 확대하고 센터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요청했다.

/남원=김기두 기자